

전일동향

전일대비 12.60원 하락한 1,367.20원에 마감

2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2.60원 하락한 1,367.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6.10원 하락한 1,373.7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안 진전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월말 네고 물량이 쏟아지며 하방 압력을 가하며 1,367.2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가 장중 변동 폭은 10.10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9.88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73.70	1375.20	1365.10	1367.20	1368.70
엔화	941.53	943.46	929.76	929.88	-	
유로화	1623.72	1625.26	1605.64	1605.98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6	-5.52	-13.99
결제환율(수입)	-0.11	-4.74	-12.14	-24.9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고용지표 호조에...1,37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67.20) 대비 5.25원 상승한 1,370.00원에서 최고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며 제한적 상승 예상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만 7천건을 기록하며 예상치(22만 6천건) 및 전주치(22만 1천건)를 하회했다. 또한, S&P글로벌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예비치가 52.2로 발표되며 기준치(50.0)와 예상치(53.9)를 모두 상회했다. 더불어, 7월 25일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 협의가 미국 측 갑작스러운 통보로 연기되며 나타난 관세 협상 불확실성 역시 원화 강세를 제한하며 환율 상승에 일조할 전망이다. 간밤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위험 선호 심리 고조 징후가 이어졌다.

다만, 월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과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수 연장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67.00 ~ 1376.6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7386.2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25원 ↑
	■ 美 다우지수 : 44693.91, -316.38p(-0.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81.3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518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